

설맞이 수도권 소비자 공략

임실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청정임실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다.

군은 지난 24일부터 31일까지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도시 자치단체인 서울 강서구·마포구·양천구 3개소와 (재)경기 인촌 전북도민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직거래 장터에 참여한다.

직거래 장터는 24일~25일은 강서구청 앞 쉼터 및 후정주차장에서 시작으로, 26일~27일은 부천시 상2동행정복지센터, 29일~30일은 양천공원, 30일~31일은 마포구청 광장에서 13개 업체(임실치즈농협 외 12개 업체)가 참여한다.



임실군은 설을 맞아 '청정임실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다.

임실군, 31일까지 농특산물 수도권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

물 판매 업체와 농가의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임실군 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며, 브랜드 가치 및 이미지 향상에 상당한 효과를 이뤄냈다. 군은 올해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여를 촉진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재경 임실군민회 회원 1,400여명에 직거래 장터 안내 홍보물을 사전 발송했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재경 임실군민이 행사장을 많이 찾았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의 정을 나누고 설명절에 필요한 우수한 농·특산물을 구입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될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임실군과 자매결연 및 우호증진을 맺어온 수도권 지역에서 재경 임실군민회 회원과 도시민들이 고향의 정취와 향수를 맡껏 느끼셨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품목과 저렴한 가격으로 임실군 농 특산물을 판매하니 많이들 찾아오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순창군, 취약계층 무료인공관절 수술비 확대 지원

순창군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무료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사업대상자 연령을 지난해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에서 올해 60세 이상으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 사업은 순창군이 무릎 관절 등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추진한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으로,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 등을 지원한다. 무료 한쪽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본인이나 가족 등이 진료소견서와 의료비지원신청서를 작성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된다.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수술을 시행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정영근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사업이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의료비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해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노암동, 찾아가는 마을 영화관 운영

남원시 노암동(동장 황금숙)은 노암1동 비안정 마을경로당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마을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영화관람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방문간호사의 건강체크와 상담이 이어지고 동장과 함께 소감을 나누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황금숙 노암동장은 "앞으로도 사업을 통해 치매예방 활동, 간담회, 복지교육 파악, 영화상영, 방문간호사의 정기적인 건강체크 등 경로



다 기능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행복추진의 거점공간으로 더욱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형우 신임 임실군 부군수 취임

임실군 오수면 출신... 본격업무 돌입

임실군 신임 부군수로 오수면 출신인 김형우(53) 전북도도로교통과장이 부임했다.



지난 25일 김형우 신임 부군수는 정식 임명을 받고 본격적인 군정 업무에 들어갔다. 김 부군수는 이날 심민군수가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고향인 임실의 부군수로 부임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임실군의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핵심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최근 지역내 최대 화두인 토양오염시설의 허가 철회문제와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중 일부인 제2순환도로 개설, 옥정호 종합관광개발 추진 등 굵직한 지역현안 사업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교과와 KDI국제정책대학원을 나왔으며, 지방기술고시 2회에 합

격, 공직에 입문했다.

전북도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군산자유구역을, 안전정책관, 정보화 총괄과장 등을 지냈다.

앞서 부군수를 역임한 박진두 전 부군수는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전 부군수는 재임하는 동안 민선 6기가 무사히 마무리되고, 민선 7기 출범, 예산 4,000억원 시대 진입, 역대 가장 많은 공모사업 유치, 임실치즈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선정, 2년 연속 30여 개의 대외의상 등에 있어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전 부군수는 "임실을 제 2의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며, 새로운 부임지에서도 임실군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은 적극 협조하겠다"며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 7기 하나 되어 종합관광개발 추진 등 굵직한 지역현안 사업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교과와 KDI국제정책대학원을 나왔으며, 지방기술고시 2회에 합

지역메아리

남원,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구축

남원시보건소(이순례)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응급 및 일반 환자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남원의료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응급진료를 실시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38개 보건기관을 비롯해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 등 총 149개소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연휴기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속한 안내 및 운영상황 점검을 위해 보건소에 진료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응급환자가 발생해 종합병원, 병원 및 당직의료기관 등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즉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나 남원시보건소(620~7918, 791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기초생활거점사업 착수

남원시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동면과 아영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발주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거점 사업이란 먼 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을 기초생활 거점으로 육성해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따뜻한 문화복지, 함께하는 체험형 생활거점 산동면'과 '에스러움이 가득한 이야기 고장 아영면 생활거점 만들기'라는 비전으로 행정·문화·복지기능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경관개선을 통한 이미지 제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4년 동안 79억원(국비 55억원 시비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게 되며, 주요사업은 산동면에는 문화플랫폼, 안전통화로 환경개선, 아이행복센터, 아영면에는 행복나눔센터와 안전통화로 환경개선,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한다.

배세근 남원시 농촌활력과정은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활력의 바람을 일으켜 새로운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농업기술센터는 유기농자재에 친환경농업 확산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순창군, 유기농자재 공급 및 관련 교육 확대

순창군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 소장 설태승)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기농자재 공급량 확대에 나서 친환경농업 확산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기술센터는 지난해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있는 1,600여 농가에 GCM(젤라틴키티탄분해미생물)과 BM(박테리아미네랄)활성수를 700여톤 공급했다.

이어 올해는 GCM과 BM활성수를 1,800여농가에 800여톤 공급할 계

획으로,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다.

BM활성수는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시키고 가스장애를 해소해 작물 생육을 촉진시켜 GCM과 더불어 주요 유기농자재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20회에 걸쳐 6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기술전수에 앞장 선바 있으며, 올해는 친환경농업 관련교육을 22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